

대한양계협회

—1973년 정기총회 개최—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2월21일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7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총회에는 김재춘회장을 비롯하여 농수산부 임영득 식산차관보, 김영진 축산국장등 많은 내빈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되었는데 이날 김재춘회장은 한국가금협회, 한국부화협회, 한국초생추 감별협회 등 3단체가 통합된 이래 처음 갖는 정기총회로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면서 우리 양계인 스스로가 단합해서 현재의 양계업의 위기를 극복하여 새해에는 좀더 밝은 양계업을 맞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1973년도 수지결산을 의결하고 1974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사회 성료

1973년도를 결산하기 위한 대한양계협회의 이사회가 지난 12월17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1973년도의 사업실적과 74년도의 사업계획을 심의 논의하고 12월 21일에 열리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가결키로 했다.

계란값 안정대책

—한국사료협회서 적극협조기로 결정—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생산비 이하로 계란값이 하락함에 따라 그 가격안정대책이 시급히 요망되므로 한국사료협회와 협조하여 계란의 적정수준공급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한국사료협회에서는 최대의 지원책으로 각회원은 양축가에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매를 계란으로 받아 일정기간 비축보관하였다가 방출하므로써 생산자를 보호하

고 난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사료협회가 양축가로 부터 구매할 난가는 개당 특란 16원, 대란 14.50원, 중란 13.50원, 소란 12.50원으로 하고 이것을 비축 후 대란이 17원이상일때 방출하기로 했다.

연탄과동 심각화

—양계협회 농수산부, 상공부 서울시에 긴급협조의뢰—

유류과동에 이어 불어닥친 연탄과동은 연탄폭귀현상을 빚어 양계업계에 또하나의 시련을 가져왔다. 서울시에 있는 양계장도 잠시나마 연탄구득난에 봉착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 양계장에선 당장 육추에 필요한 연탄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었다. 이에 따라 대한양계협회에서는 긴급대책을 협의 농수산부, 상공부 서울시에 협조를 의뢰 양계가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해줄것을 건의했다. 한편 각부처에서는 이 요청에 따른 대책을 협의 양계가를 위한 중탄을 더욱 많이 하여 생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해외파견 감별사 시험 성료

지난 12월8일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한 해외파견 감별사 시험에서 9명이 합격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취업의 길이 열렸다. 당초 16명의 해외초청이 있었는데 엄격한 시험을 거쳐 9

※ 근 하 신 년

대한 양계 협회는 여러분과 함께 양계산업 발전을
귀해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대한양계협회 임직원일동—

명만이 합격자를 냈다. 합격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태명, 박홍식, 정국연, 심기섭, 이창호, 정성순, 전남철, 김석연, 조승제

한편 울들어 해외에 취업하고 있는 감별사는 세계 25개국에 191명에 이르고 있는데 각국에 진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 1. 영 국 10명
- 2. 프 랑 스 3"
- 3. 이 태 리 4"
- 4. 서 독 30"
- 5. 스 페 인 10"
- 6. 네 벨 란 드 2"
- 7. 폴 투 칼 5"
- 8. 스 위 스 3명
- 9. 이 란 5"
- 10. 아 이 랜 드 6"
- 11. 브 라 질 12"
- 12. 미 국 60"
- 13. 알 쟈 틴 6"
- 14. 캐 나 다 12"
- 15. 페 바 는 1명
- 16. 일 본 4"
- 17. 오 스트 리 아 2"
- 18. 인 도 네 시 아 3"
- 19. 월 남 1"
- 20. 멕 시 코 1"
- 21. 우 르 파 이 1"
- 22. 파 라 파 이 5명
- 23. 터 어 키 1"
- 24. 오스트레일리아 3"
- 25. 아르헨티나 3"

5-2회 부로일러 경제능력 검정완료

대한양계협회 닭 경제능력검정소가 그동안 실시해온 5-2회 부로일러 경제능력 검정사

업이 지난 12월 21일 종료됐다. 발표는 집계가 되는데로 곧 실시할 예정이다.

부화장 실태조사 완료

대한양계협회 지도조사부가 오랫동안 조사해온 전국의 부화장 실태가 완료되어 본지 별지에 발표되었다. 전국 각 부화장별 현황은 양계협회에서 보관중이다.

경북지부소식

대한양계협회 경북지부는 지난 11월 23일 대구근교의 부화장경영자 및 사육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현 양계업의 불황과 양계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심각한 과잉생산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날모임에서 현재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적정선을 파악하여 수급에 균형을 기하고 양계안정기구및 신흥협의 기구등을 만들어 장기안정대책을 수립하고 법적인 보완 뒷받침을 강구해 줄 것과 단기대책으로는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계절적인 비수요기에 양계업자를 비롯한 축산관계기관및 관련업체에서 산물을 비축하여 안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하고 수익성이 낮은 노계를 조기 도태하여 사료의 절감 및 사양농가의 피해를 줄이도록하고 사육농가의 비축을 위한 자금은 농협중앙회와 절충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충

하기도 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 2개의 일간신문에 보도하고 전 양계인의 협조와 호응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12월 14일 열린 경북지부 월례회에서는 소비증대를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할 것을 결의하고 그 일환으로 양계산물의 영양분석 및 가격이 타식품과 비교하고 가정주부를 상대로 하여 중앙지 및 여성월간지에 광고토록하고 타지부에 윤번으로 이와 같은 홍보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고 대한양계협회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이 소식을 듣고 현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일환의 하나인 지부 사업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면제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면제해주시기로 결의의 국회에 상정한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 법률안이 12월 1일 국회를 통과 정식가결 되었다.

사료가격 25.5%인상허용

정부는 그동안 억제해 오던 배합사료 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로 지난 12월 4일 현행배합사료 가격의 25.5%인상을 허용 모든 배합사료에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사료공장

업 계 동 향

은 국제원료상승에 압박을 받아 출혈생산을 감수 해왔는데 배합사료가격의 현실화 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종래 배합사료의 질적저하가 어느정도 보완된 상태에서 생산될 것이 확실시 된다. 한편 배합사료 인상에 따른 양축가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 졌지만 종래 사료질의 저하로 양축가가 2중으로 피해를 감수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료가격의 25.5%의 재인상은 양축가로서 한결 부담이 무거워진 것은 사실이나 질적보완을 위해선 부득히한 처사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대한양계협회에서는 배합사료 인상에 따라 본 월간양제지를 통한 긴급호외(號外)를 발행 양축가에게 긴급 통고한바 있다. 지난 12월 15일 발행한 월간양제 호외에는 사료가격의 인상에 따른 제반사항과 양제가에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중계도입중지에 대한 기사를 긴급보도한바 있다. 이번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1973년도에 배합사료가격은 무려 80.5%나 인상되었다. 또한 월간양제지는 사료가격 인상에 따라 양제가를 위해 본협회 부회장 오세정교수와 사료협회 유윤수회장과와의 인터뷰로 새해 사료전반에 대한 보도특집을 본 월간양제지를 통해 게재했다.

양축가 신고센터 설치

정부는 사료가격 인상을 허

용했는데도 각 사료공장이 불량사료및 지시위반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시도 식산국 측 정과내에 양축가 고발센터를 설치 위반 사항이 발견될때 즉시 의법조치키로 했다.

한국배합사료협회

●사료가격인상에 따른 긴급회의 소집 대책협의●

한국 배합사료협회는 12월 15일 사료가격 인상에 따라 긴급이사회및 총회를 소집배합사료 제조업체로 하여금 강류사료를 편중 배합하여 사료질을 저하시키거나 강류사료 품질을 가속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물론 배합사료 생산을 기피하여 유통원활화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기간은 배합사료 인상일로부터 2개월로 하고 2개월후에도 계속 실시한다. 저질품, 제품생산기피및 공급기피, 제품판매가격의 위배, 중량미달, 강류사료 편중배합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된 업체에 대해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6개월내에 재 등록을 불허하고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배합사료 종류별 인상가격● (공장도 기준kg/원)

	종전	현행(25.5% 재인상)
어린병아리	65.17원	81.79원
중 병 아 리	56.08	70.38
큰 병 아 리	49.24	61.80
산 란 초 기	56.26	70.61
〃 중 기	52.63	66.05

〃 말 기	48.62	61.02
중 계 사 료	61.20	74.97
부로일러전기	68.14	85.52
부로일러후기	65.17	81.79
양 돈 용	40.74	51.13
유 우 용	37.75	47.38
비 육 우 용	41.33	51.87

● 강피류 과다사용억제 ●

서울시는 배합사료의 우수품질을 유지시키고 강피류 사료의 품귀현상을 시정키 위해 배합사료에 강피류 허용범위를 시달했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어린병아리사료	10%이내
· 중 병아리 〃	15% 〃
· 큰 병아리 〃	20% 〃
· 산란초기사료	12% 〃
· 산란중기사료	15% 〃
· 산란말기 〃	18% 〃
· 부로일러 〃	10% 〃
· 젖 메 기 사 료	10% 〃
· 어린돼지사료	12% 〃
· 중 돼 지 사 료	35% 〃
· 씨 돼 지 사 료	40% 〃
· 젖 소 사 료	50% 〃
· 중 계 사 료	10% 〃
· 비 육 우 사 료	40% 〃

한협월례회 성료

한협협력회(회장:윤경중)는 지난 12월 15일 월례회를 가졌는데 이번 중계의 금수조처와 앞으로의 양제전망에 따른 판매작전을 협의 의논하고 안양가축위생연구소 계열과장 박근식씨의 중계장, 부화장의 위생관리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삼성사료 서울사무
소이전***

항상 질 좋은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사료의 서울사무소가 지난 12월15일 용산구 한강로3가 63의 117호로 이전 업무를 계속키로 했다.

전화는 ㉔ 2360 ㉕ 0964

***축산대책협의회
구성***

지난 12월17일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축산관계 단체, 특수조합, 학계등을 포함한 축산전반에 걸친 대표들이 참석하여 발기인회를 갖고 축산자본야별로 산적해 있는 제반 문제점과 축산전반에 걸친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시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범 축산인의 협의체인 축산대책협의회를 결성했다. 축산대책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축산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이날 발기인회에서 추대된 협의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 최영규(서울우유협동조합)
- 윤희섭(전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 이재우(동일목장대표)
- 황영구(한국중축개량협회 부회장)
- 육종용(서울대학교농대 교수)
- 이용빈(서울대학교농대 교수)

- 우순필(양돈협회회장)
- 오봉국(서울농대교수)
- 이필용(소신중계원대표)
- 오세정(대한양계협회부회장)
- 김시호(대한사료사장)
- 김춘수(KIST 동물사료 연구실장)
- 유윤수(한국사료협회장)
- 이원영(춘산물수출협회회장)
- 김길원(한국비타민 헤드쿼터스사장)
- 이영소(서울농대교수)
- 김흥기(동물약품협회장)
- 유종래(대구축협조합장)
- 유용보(서울축협조합장)
- 황준오(부천축협조합장)
- 장천호(축산진흥회장)
- 김영진(한국냉장사장)
- 이동욱(전동아일보논설위원)
- 강창진(삼화축산)

동서축산

—봉명부화기 제작소 부화기 판매개시—

일본 마스타혼 부화기를 제작 판매처인 동서축산 봉명부화기제작소는 지난 11월 20일 제1호기 제작을 완료하고 첫시점 부화가 11월 22일 입란, 12월14일에 발생이 성공리에 끝냄으로서 판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 연락처는 중구양동 44-28 전화 28-9800 동서축산으로 하면 된다.

세이버협회

한국세이버협회(협회장: 이

필용)는 지난 12월6일 세이버협회 정기월례회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가졌는데 이날 세이버협회원 전원과 축산관계전문인사를 모시고 73년도 양계 현황과 74년의 양계전망을 논의했다.

북악친목회

부화업자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짐하는 북악친목회(회장: 김원복)는 73년12월10일 6.30분 서울시 을지로2가 삼일관2층에서 1973년을 회고하며 새해에도 계속적인 발전을 기약하는 모임을 가졌다.

***세계의 소맥생산
기록적 풍작***

—3억4천9백만톤 예상—

작년 흉작으로 수급사정이 팽박했던 세계의 소맥사정은 금년들어 경작면적의 증가등으로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인 71년작황을 3%정도 상회하는 3억4천9백만톤의 대풍작이 예상된다. 특히 작년 대 흉작이었던 소련의 증산이 현저하여 작년실적을 11% 상회하는 9천5백만톤의 수확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억5천만톤으로 추정되어 풍작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12%증가한 4천7백만톤으로 사상 최고이며 캐나다는 17% 늘어난 1천7백만톤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작년의 흉작

으로 세계 소맥재고가 전년비 40%나 감소 이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폭등한 시세가 쉽게 가라 앉을 것 같지는 않다.

10시간점등으로 산란을 좋아져

—8시간점등→10시간 소등→2시간 점등→4시간 소등하는 방법, 미국 코넬대학에서 연구—

지금까지는 하루에 16시간의 점등을 해주어야 산란율이 제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난 3년동안 미국의 코넬대학 티에노브교수와 오스트랜더교수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하루 10시간의 점등으로 충분히 산란율을 높힐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의 점등방법은 하루 중 낮시간에 8시간을 점등하고 10시간을 소등한 다음 다시 야간에 2시간 점등하고 4시간 소등하는 것이다. 이방법은 하루 16시간 점등할 때보다 특별히 산란율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산란율이 좋아졌지만 전기료를 많이 절감시킬 수 있다는데 더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은 광선의 강도는 0.5후트캔들이 알맞으며 그 이상일 때는 카니발니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계사의 광도를 조절하는 것은 스위치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다이알을 돌려 전등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개발되어 시판중에 있다. 점등시간을 10시간으로 줄이고 밝기를 조절하여 경제적인 양제를 해보도록 권하고 싶다.

축산업의 종합소득세 면제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면제해 주기위한 법률안이 지난 12월1일 국회를 통과해서 법률로서 확정됐다.

한국낙농 제2공장 준공

한국낙농유업(주)는 지난 12월 전남송정리에 제2공장을 준공함으로써 1일 10,000kg의 시유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가지게 되었다.

바브콕협력회 정기총회 개최

바브콕협력회는 지난 73년 12월 20일 협력회 사무실에서 바브콕회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날 회의는 73년도의 양제불경기에 대한 토론과 협력회 예산결산 및 74년도의 계획 등협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구 최상진회장은 지난 74년동안 친목을 위해서는 회원 서로가 어느 단체보다도 노력이 컸었다는것을 자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친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입회장선출이 있었는데

대회장에는 서울부회장 대표 윤경중씨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이창열씨 모범시민 표창

이문부회장 대표 이창열씨가 모범시민 표창을 받았는데 씨는 이문동일대의 도로 포장공사에 시멘트 3백포를 회사하는 것을 비롯 국기없는 1백80가구에 국기를 나누어 주고 국기달기운동에 공헌하고 매일 아침 경로회원 30여명과 조기청소를 실시 주민의 협동정신과 의무감을 고취 시켰다. 또한 동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때는 출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새마을 사업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열사장은 수상소감에서 별로 한일도 없는데 표창을 받게 되었다고 겸손해 했는데 양제업체 모두가 경하할 일이다.

양제경영사

양제경영사(대표:장용식)는 오는 2월호부터 제호를 축산경영으로 변경 대폭증면함과 아울러 종래 양제전문지에서 탈피 종합축산지로의 면모를 새롭게 다져 나가리라 한다. 한편 사세를 대폭 확장 취재부처장에 최상남(건대졸)씨를 기용 업무에 박자를 가하리라한다.